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 DRY

창세기 14 주차 (창 8:20-9:19)

(2016년 3월 20일 - 2016년 3월 26일)

(제 4 권 14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4 권-제 1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3 월 2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뫼어 속어서 드러진 예뻐 (주입)

오늘의 본문 (창 8:20~22)

- (20 절)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ן נֹחַ מִזְבֵּחַ לַיהוָה)
 깨끗한 동물 중에, 그리고 깨끗한 새 중에 골라서 (וּמִכָּל הַעוֹף הַטָּהוֹר)
 그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וַיַּעַל עֹלֹת בְּמִזְבֵּחוֹ)
- (21 절) 여호와께서 그 편안한 향기를 맡으시고, (וַיִּרַח יְהוָה אֶת-רִיחַ הַנְּיָחֹם)
 여호와께서 노아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לִבּוֹ)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לֹא-אֶסְפָּא לְקַלֵּל עוֹד אֶת-הָאָדָמָה בְּעִבּוֹר הָאָדָם)
 사람의 마음의 생각하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כִּי יֵצֵא לֵב הָאָדָם רַע מִנְעֻרָיו)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וְלֹא-אֶסְפָּא עוֹד לְהַכּוֹת אֶת-כָּל-חַי כְּאֲשֶׁר עָשִׂיתִי)
- (22 절) 땅의 모든 날 동안 심음과 거둢,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עַד כָּל-יְמֵי הָאָרֶץ יִרְעוּ וְקָצִיר וְקָרָר וְחֹם וְקֹיץ וְחָרֵף וַיּוֹם וְלַיְלָה לֹא יִשְׁבְּת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은 무엇을 보았을까?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 아래 녹음이 우거진 숲, 그사이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시냇물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꽃이 만발한 그런 파라다이스였으리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노아의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은 먹을만한 풀 한 포기조차 찾기 어려운 광야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라. 일년이 넘는 시간을 물 속에 잠겨 있던 땅이었으니 오죽했겠는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인들 온전하게 남아 있었겠는가? 홍수 심판 때 땅은 갈갈이 찢기고 터져서 지하에 가득 잠겨있던 물들을 밖으로 토해 냈다. 그 과정에서 창조 때 각종 풀과 나무가 가득했던 아름다웠던 땅은 만신창이가 되어 너털너털해졌다. 그것이 노아가 대면한 현실이었다. 아마도 노아의 마음은 암담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먹먹한 마음을 다잡으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노아 가족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곳 저곳에 널부러진 돌 중에서 반듯한 돌을 찾아서 단을 만들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는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셋이 아벨을 대신하였으니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기록도 없다. 명령하지도 않은 제사를 노아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노아에게겐 너무도 익숙한 일상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지 어떤 짐승을 골라 드려야 할지 그가 어찌 알았겠는가?

추정컨대, 노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노아가 아닌, 그가 드린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의 공로가 아닌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공로로 살아 남았다는 말이다. 어쨌든 노아는 제단을 만들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골라 그것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처럼 방주에서 나와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제사드리는 일이었다. 요즈음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는 일종의 언약식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인간은 엄숙하게 그 언약을 받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인간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 인간들끼리의 언약과는 달리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다.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은 서로 간에 언약을 확인하는 증거다. 쌍방이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그렇다면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왜 희생 제물이 필요했을까? 노아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에도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희생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노아가 별도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생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았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노아가 드린 제사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다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21 절)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율배반적으로 들린다. 지금 이 언약을 하는 대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이다. 그들은 1년 이상 방주에 있었고 그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더 이상은 심판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약속의 내용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이 약속은 노아와 하는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약속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그럼 앞서 하신 홍수 심판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인간이 악하고 그 결과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노아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을 수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은 이유로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 홍수 심판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지금 새삼스레 알게 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뜻 듣기에도 매우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반드시 심판은 하되 그 방법을 달리 하겠다는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부터는 원래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심판은 어떤 것일까?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고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대신 죽이는 것이다. 죄지은 인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그 방법을 미리 보여 주셨다. 홍수 심판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심판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가족들에게 그런 당신의 심오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지금 노아의 희생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죄인들을 죽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다.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랐기 때문이다. 당시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는지 재미삼아 계산을 한번 해보자. 당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어림잡아 이백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하나님이 가족당 한 마리, 가족 수가 적은 집은 두세 집당 한 마리씩 양을 잡으라고 했으니 만약 열 명을 기준으로 한 마리의 양을 잡았다면 그날에 죽은 양의 숫자만 줄잡아 이십만 마리다. 스무 명당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해도 십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 그 많은 양들이 왜 죽어야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날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피 뒤에 숨는 것 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그래서 유월절(Passover)이다.

예수님은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가 흘린 피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가 심판받는 대신 예수를 죽여 그 피로 인해 심판을 면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 뒤로 숨은 자들이다. 우리를 향해 날아온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예수님이 막아서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의 죄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 저주를 피붓는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노아 당시의 홍수 심판이 당신에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주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7)

- (1 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בָרֶךְ אֱלֹהִים אֶת־נֹחַ וְאֶת־בָּנָי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לָהֶם)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워라.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 (2 절) 너희를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이다, (וּמִוִּירָאָכֶם וּמִחִיָּהוּ)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 (עַל כָּל־חַיַּת הָאָרֶץ וְעַל כָּל־עוֹף הַשָּׁמַיִם)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כָּל אֲשֶׁר תִּרְמַשׁ הָאָדָמָה וּבְכָל־דְּגַי הַיָּם)
너희 손에 주어졌다. (בְּיַדְכֶם נִתְּנוּ)
- (3 절) 생명이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כָּל־רֶמֶשׂ אֲשֶׁר הוּא־חַי לָכֶם יִהְיֶה לְאֹכְלָהּ)
푸른 채소처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כָּל־אֶת־כֹּל לָכֶם אֶת־כֹּל)
- (4 절) 그러나 너는 그들의 생명,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אֲדָבָר־בְּשָׂר בְּנִפְשׁוֹ דָּמוֹ לֹא תֹאכְלוּ)
- (5 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찾을 것이다: (וְאִךְ אֶת־דַּמְכֶם לְנַפְשׁוֹתֵיכֶם אֶדְרֹשׁ)
내가 모든 동물의 손에서 그 피를 찾을 것이고, (מִיַּד כָּל־חַיָּה אֶדְרֹשְׁנָהּ)
그사람의 손에서, 각사람 형제의 손에서, (וּמִיַּד הָאָדָם מִיַּד אִישׁ אָחִיו)
내가 그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אֶדְרֹשׁ אֶת־נַפְשׁ הָאָדָם)
- (6 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שֹׁפֵךְ דַּם הָאָדָם)
사람에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בְּאָדָם דָּמוֹ יִשְׁפָּךְ)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כִּי בְצַלְמֵם אֱלֹהִים עָשָׂה אֶת־הָאָדָם)
- (7 절) 이제 너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 (וְאַתֶּם פָּרוּ וּרְבוּ)
이 땅에 가득히 퍼지고 이 땅에 번성하라. (שָׂרְצוּ בָאָרֶץ וּרְבוּ־בָ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주셨다. 여기서 복주셨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다. 바라크는 동사다. 그들에게 복주셨다라는 말은 복이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존재해서 그 복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지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신 것이다. 국어 사전에서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히브리어 ‘바라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해주거나 격려해준다는 뜻에 더 가깝다. 우리 신앙이 기복 신앙으로 흐르기 쉬운 이유가 바라크를 우리 식의 복으로 해석한 데 기인한다. 히브리어 ‘바라크’에 우리말 ‘복’이 같은 뜻으로 대응되는 단어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건강, 부, 가족의 안녕, 명문대 입학이나 좋은 직장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온갖 만족을 복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

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그런 종류의 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복의 아이콘이라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 보자.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첫 약속, 첫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사라는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라면 사라는 다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인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사라에게서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을 뿐이다. 그 이삭도 자식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늦게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 전부다. 아브라함이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그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알았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면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거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말이다. 그는 자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나안 땅으로 와야 했는지, 그렇게 애를 태우다 겨우 아들 하나를 얻어야만 했는지, 그가 왜 이방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브라함 자신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당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몫이다.

복이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이 주는 혜택이나 누리고 사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 삶의 여정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 둘 제거되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진짜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하기도 어렵다. 참된 복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날마다 산해진미, 진수성찬을 즐기는 부자보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린 배를 채우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 부자였지만 그 마지막은 음부로 떨어졌고, 이 세상에서 지지리도 복없이 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나사로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지만 부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주셨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바라크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의무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을 약속하지도 보장하지도 않으셨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라크다.

잘 생각해 보라. 폐허가 되어 버린 땅에 달랑 여덟 식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들 앞엔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 영망이 되어 버린 생태계는 하

나눔이 복원시켜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땅을 파고 식물을 심고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인류를 깡그리 심판하고 다시 창조하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다. 노아는 그렇다고 치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 때문에 덩달아 심판을 면했다. 말하자면 끼워주기식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들은 창조 후 아담과 하와가 받은 명령처럼 다시 이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을 부여받았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이다.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세상적인 복을 카운트하던 손가락은 이제 접으라. 대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무지 모르겠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 복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7)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다. 다시 말해 동물과 인간이 우호적 관계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관계로 변한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다같이 방주에 올라탔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신다.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이다.

그 동안 인간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며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지상의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고 새들은 다섯째 날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보냈다.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담이 지어준 이름들은 그 자체가 그 동물을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사자, 원숭이, 뱀, 말, 양, 소, 너구리, 여우, 곰 등등.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는 어떠한 적대적 감정이나 비호감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동물들은 그들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과도 평화롭게 공생하는 관계였다.

하나님의 첫 시작은 그랬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모두가 초식을 했었고 (창 1:30 참조).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적대적 감정도 없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파라다이스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첫 창조 때처럼 평화로운 파라다이스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25).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육식도 허용한다고 선포하신다. 육식을 선포하는 순간 인간과 짐승간의 평화, 살림은 사라진다. 살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스멀스멀 차오른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인간 사회뿐 아니라 동물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받은 땅이었다.

두려움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까닭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운 때문에 때론 잠 못 이룬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인적이 뜸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검은 후드티를 입은 건장한 남자가 조금이라도 불량스런 모습으로 자기를 향해 걸어 오면 순간 두려움으로 멈칫하지 않는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트라우마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순간 혼비백산하여 오던 길로 달아날 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정상은 아닌 듯하다. 이런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사파리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는 동안에도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사자와 같은 포식자들이 언제 나타나서 그들을 잡아 먹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걸으려는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낚새가 느껴진다 싶으면 어느새 삼십육계 출행량을 친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두려운 존재는 따로 있다. 어딘가에 숨어 무기를 들고 그들의 고기와 가족을 노리는 인간들이다. 인간은 모든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

홍수 심판을 면한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일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함께 보냈던 동물들에게 더 이상 친근한 존재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방치한 세상,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한 세상은 늘 약육강식이 판친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인간이다. 인간들은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서로 힘의 우위를 주장한다. 타인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협이다. 힘으로뿐 아니라 돈으로, 권력으로 상대를 위협한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거라면 뭐든 총동원하여 자신을 과시한다. 반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도 동일하다. 돈, 권력, 지식, 명예 따위로 자신을 방어한다. 게다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점점 더 많이 가지려 한다. 그런 모든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들이 늘 착각하는 것이 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착각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나오는 부정적 감정이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없앨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편지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결국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들과는 평화가 선언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웃과의 사랑도 깨닫게 된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인간들 간의 두려움도 없앤다. 이웃과 결코 경쟁할 필요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간들끼리의 서로를 향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하지만 궁극적인 평화는 피조 세계 역시도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도래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합니까? 혹시라도 여전히 자신을 움아매는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피와 생명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7)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 채식만 했던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다. 육식을 허락하시되 제한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전면적인 허락이다. 3절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드디어 인간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면적 육식 허용이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육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까?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시나 선물 정도로 생각하고 덤석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꺼림직하다. 이렇게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아담 때부터 진작 허용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러한 의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는 없다.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완전하게 읽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넘겨버릴 일도 아닌 듯하다. 인간 먹거리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이 직접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4절을 읽어보자.

“그러나 너는 그들의 생명,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면서 하나의 법을 세우신다. 이는 식물을 만드실 때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하나님은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인간의 먹을 거리로 주면서 단 한 가지만 금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 나무와 함께 나란히 동산 중앙에 있었다. 아담과 하와의 이목을 끈 것은 생명보다는 선악이었다. 결국 인간은 ‘영원한 생명’보다 ‘하나님처럼’을 택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 결과 여덟 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육식이라는 파격적인 먹거리와 함께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다. 특정 동물을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아니다. 모든 동물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를 금했다. “먹지 말라.” 아담에게 한 경고와 노아에게 한 경고가 정확히 일치한다.

아담은 생명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택했다. 금한 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열려있던 생명의 문이 닫혔다. 그 대신 타인을 향한 선악의 잣대, 자신을 향한 선악의 잣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추구하며 좋은 것을 따랐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 인간은 선악 기준을 가졌지만 그 선악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죄만 양산했고 이 땅은 죄로 가득했다. 아담이 생명 대신 선악 판단 기준을 택한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다. 하나님은 생명 나무를 통해 생명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보다는 지식을 택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다. 노아는 또 다른 아담이다. 또 다른 인류의 시조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생명의 의미를 노아를 통해 가르치려 한다. 채소나 나무의 열매가 아닌 짐승으로 말이다. 하나님은 육식을 전면 허용하시면서 먹거리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다. 그 한계는 피다. 그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다. 하나는 생명의 메시지이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다. 구원과 생명은 피에서 하나로 만난다. 모든 것이 피에 들어 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육식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찾을 것이다. 내가 모든 동물의 손에서 그 피를 찾겠고, 그 사람의 손에서,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해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창 9:5~6).

하나님의 경고는 매우 엄중하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한 말씀보다 더 엄하게 들린다. 피를 먹으면 죽는다. 피에 생명이 있기에 다른 생명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를 통해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인간이 동물을 잡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한다. 그 때마다 인간은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동물의 육체에서 빠져 나가는 그 피를 보며 인간들은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피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 레위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0~11).

피는 생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 피흘림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피가 생명이니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다. 히브리서 저자는 피흘림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매년, 그리고 매일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야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번의 피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의 피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단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 때부터 이런 피흘림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흘림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선악에 관한 지식과 생명 중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9:8~11)

- (8 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אֶל-נֹחַ וְאֶל-בָּנָיו אִתּוֹ לֵאמֹר)
- (9 절)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וְאֲנִי הִנְנִי מְקִים אֶת-בְּרִיתִי)
너희와 너희 후손과, (אִתְּכֶם וְאִת-נִרְעֵכֶם אַחֲרֵיכֶם)
- (10 절)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동물과, (וְאֵת כָּל-נֶפֶשׁ הַחַיָּה אֲשֶׁר אִתְּכֶם בְּעוֹף בְּבִהְמָה וּבְכָל-חַיַּת הָאָרֶץ אִתְּכֶם)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에서 땅의 모든 동물까지, (מִכָּל יְצֵאֵי הַתֵּבָה לְכָל חַיַּת הָאָרֶץ)
- (11 절)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וְהִקְמַתִּי אֶת-בְּרִיתִי אִתְּכֶם)
모든 육체가 다시 홍수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וְלֹא-יִכָּרֵת כָּל-בְּשָׂר עוֹד מִמֵּי הַמַּבּוּל)
이 땅을 멸하기 위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וְלֹא-יִהְיֶה עוֹד מַבּוּל לְשַׁחַת הָאָ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생명의 의미를 설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향해 언약을 선포하신다. 그 언약은 노아를 어떻게 만
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세상의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적어도 인간들이 바
라는 정도의 어떤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약속은 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을 물로 멸하는 방식의 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중
심에 말씀하신다.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린 직후에 하신 말씀
이다. 그 희생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은 스스로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
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창 8:21).

지금 이 선포는 하나님이 마음 속으로 이미 결정하신 사안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뜻을 노아에게
선포하고 계실 뿐이다. 사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이라고 뜻을 세우셨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피상적이고 즉
흥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다. 소위 대중 요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 하나
님은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일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것을 아신다. 따라서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으신다. 아담의 세대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면 노아로 다시 시작하는 세대는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이상 홍수 심판과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넘지 못할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 이
강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강이 아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켜낸다 해도 그 죄

의 강물이 줄어들거나 폭이 좁아지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인간의 상태나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주체가 인간들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착각이다. 관계를 깨는 것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죄지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한 번쯤 눈감아 줄 수도 있을 법 한데 그러시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아예 우리와 관계를 끊었다.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에 죄를 처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 늘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아무리 개과천선하여 선하게 살아간다 해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라 규정하셨다. 악한 존재, 죄 많은 존재가 스스로 악을 짓고 정결하게 될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는 요원하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를 의롭다고 말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야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바리새인의 착각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레 내놓았다.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못했다. 감히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 온 세리의 부정한 행위를 심판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바리새인에게 은혜는 오히려 수치에 가깝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으면서 은혜 따위나 바라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세리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음을 직시했다. 마냥 옹드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옹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괜찮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세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은 아니다. 은혜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다. 직접 세리를 심판하는 대신 그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지우셨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의로운 옷을 면목없이 받아입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나의 낡은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옷이 의롭고 청결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미달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든 옷만이 유일한 의의 옷이다. 우리는 죄도 내려 놓아야 하지만 자신이 쌓은 의도 내려 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다른 대안이 있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심판하는 대신 희생 제물을 통해 화목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심판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의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다.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대신 지운 염치없고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듯 구원을 깨닫는 것은 해방의 기쁨 속에 담긴 십자가의 진노를 발견하는 일이다. 한쪽 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고, 다른 한쪽 눈에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슬픔으로 눈물이 흐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대신 진노를 받아 죽음의 심판은 받으셨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언약의 증거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2~17)

- (1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이것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에게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זאת אות-הברית אשר-אני נתן ביני וביניכם ובין כל-נפש חיה אשר אתכם לדורת עולם)
- (13 절)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והיתה לאות ברית ביני ובין הארץ)
 이것은 나와 이 땅 사이의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את-קשתי נתתי בענן)
- (14 절) 내가 이 땅에 구름을 덮고 구름 속에 그 활이 나타날 때,
 (והיה בענני ענן על-הארץ ובראותה הקשת בענן)
- (15 절)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ונזכרתי את-בריתי אשר ביני וביניכם ובין כל-נפש חיה בכל-בשר)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기 위한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ולא-יהיה עוד המים למבול לשחת כל-בשר)
- (16 절) 그 활이 구름 속에 있을 때, (והיתה הקשת בענן)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וראיתיָה לזכר ברית עולם בין אלהים ובין כל-נפש חיה בכל-בשר אשר על-הארץ)
- (17 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אל-נוח)
 이것은 내가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זאת אות-הברית אשר הקמתי ביני ובין כל-בשר אשר על-הארץ)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더 이상 물로 하는 심판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활을 제시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활을 무지개로 번역했다.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즉, 무지개는 빛이 물방울 사이에 들어가 굴절되어 파장에 따라 일곱색을 내는 활 모양의 띠다.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비가 그치고 날이 갠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여기서 왜 무지개가 아니고 활이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한글 성경에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퀘세뜨' (קֶשֶׁת)이다. 이 '퀘세뜨' (קֶשֶׁת)는 활(弓)이라는 뜻이다. 원래 퀘세뜨는 화살을 장전해서 쏘는 기구를 일컫는 히브리어다. '퀘세뜨'는 성경에 77 번이나 사용되었는데 무지개로 번역한 곳은 단 네 곳에 불과하다. 그 중 창세기 9 장에 세 번 쓰였고 에스겔서 1 장 28 절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나머지 73 번은 모두 활 또는 활과 관련하여 사용됐다. 우리 한글 성경은 무지개라는 번역을 고수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본만 하더라도 활과 무지개 둘 다로 번역했다. 좀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은 한결같이 '활'(bow)로 번역하고 있고, 쉽고 편한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은 더러 무지개

(rainbow)로 번역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원전 300년 경헬라 문화권의 유대인들에 의해 번역된 칠십인역 성경은 ‘퀘세뜨’를 ‘토콘’(τόξον)으로 번역했다. 토콘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쓰는 활이다. 사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의 하나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굳이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폭포수 아래서도 흔히 발견된다. 하지만 활로 번역하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문에 분명히 나의 활(my bow, 영어성경 ESV, NASB 등)이라고 하셨다. 인간들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활이다. 활은 화살을 장전하고 적을 쏘는 무기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활’이라는 번역을 지지한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런 데다가 다른 많은 번역들도 활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지개로 고집할 만한 어떠한 근거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지개로 이해한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이라는 번역을 전제로 한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이 의견만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활’을 제시하셨다. 구름 사이에 감추어 둔 그 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공격용 무기인 활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활은 여전히 심판의 활이며 진노의 활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 활에 딱 한번 화살을 장전하여 쏘셨다고 생각한다. 이 화살은 죄인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날아갔다.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있던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돌진해 간 것이다. 예수님은 그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셨고 무참히 죽임당했다. 그래서 몸 속의 모든 피가 땅에 흘러 내렸다. 그 피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와 같은 낭만이 아니라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심판이다. 그 심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이 흘린 피 뒤로 숨었다. 하나님의 활은 죄를 향한 심판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증거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심판의 화살, 진노의 화살을 받아내던 순간을 누가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눅 23:44)고 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직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마 27:51).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언약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증거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기 위해 가져야 할 유일한 증거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닌가? 당신은 그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온 땅이 구름으로 덮여 그 속에 하나님의 활이 나타난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활을 보았다면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은 누구인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8~19)

- (18 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וַיְהִי וּבְנֵי נֹחַ הַיְצֵאִים מִן־הַתְּבֹהַב שֵׁם וְחָם וְיָפֶת.)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וְחָם הוּא אָבִי כְנָעַן.)
- (19 절) 이 세 사람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שְׁלֹשָׁה אֲלֵהּ בְנֵי־נֹחַ.)
 이들로부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וּמֵאֵלֶּה נִפְצָה כְּלֵהָאָ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의 아들들은 자식을 낳았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있는 인간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 현 인류가 태어났다. 우리의 조상인 바로 이 노아의 때에,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두드러지게 언급하고 있다.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다. 도대체 왜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나안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 성경의 저자는 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오늘의 본문은 노아 이야기의 에필로그다. 이 에피소드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 벗고 잠을 잔 것을 비난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또는 단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경솔한 행동을 질책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장소, 문화, 등장하는 인물, 인물들 간의 역학 관계를 다 함께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 당시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경 속의 배경뿐 아니라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일차독자들에게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냈다. 가나안을 정탐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다.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을 뿐 불행하게도 나머지 열 명의 부정적 보고가 훨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에에서는 소요가 일어났다. 성경은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민 14:1).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사지였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지에 몰아 넣기 위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으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라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동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다.

그들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비록 거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쎬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가나안 종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그들을 종으로 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두려움으로 극렬한 소요에 휘말리게 된 근처에는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그들은 그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보았다. 거인을 보고는 그냥 네피림의 후손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사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직전에 살았던 거인들이다. 그들 모두는 홍수 심판으로 죽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기 보다는 그들과 비슷한 거인 족속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아는 살았고 네피림은 죽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낙 자손의 이야기를 듣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다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도 네피림처럼 속수무책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일 뿐이다. 성경은 함께 정탐을 다녀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민 14:7-9).

이들의 외침은 시내산 바위들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 메아리에서 노아가 진노하여 가나안을 저주한 말이 들린다. 사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순서대로 보면 가나안은 막내다. 함의 자손 중에 미스라임은 이집트 사람들의 선조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앗시리아와 바벨론 사람들의 조상이다. 결국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 막내인 데다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종족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노아는 그 힘없는 가나안 족속을 꼭 집어서 저주했다. 이게 우연일까? 노아가 화김에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는 건 자명하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다. 하나님이 생각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하고는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현실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이 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광야에서 사십년을 보내야 했다. 더더욱 비극적인 것은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할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피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이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인간은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적어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는 가나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그러한가요?